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이상현(010-4300-5441)

e-mail

cpla@minjoo.kr

“청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며, 공공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지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한국노총 각급 조직,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이어져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정책간담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청년조합원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후보, 이재명!”

5월 28일(수) 오전 11시에 한국노총 청년조합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여성청년본부장),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여성청년본부 청년단장) 등을 비롯한 청년노동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의제실천본부장 박홍배 의원,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장 모경종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청년조합원들은 “이재명 후보는 청년세대를 위해 허울 좋은 정책만을 내놓는 후보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라며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세대의 불평등한 출발선을 바꿀 유일한 책임자”라고 지지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청년세대는 N포세대라 불릴 만큼 포기해야 할 권리들이 늘어난 상태이며,

지금과 같은 파편화된 정책으로는 위기에 처한 청년의 삶을 구할 수 없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진짜 필요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며, 포기 대신 꿈을 위해 도약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존중선대위 정연실 여성청년본부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많은 청년들이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환경,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그 누구보다 청년의 삶을 직시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려는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에게 제시한 공약이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비전이라고 믿는다”며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 청년의 권리와 희망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청년이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존중선대위 의제실천본부장 박홍배 의원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인데, 이 자리에 대입해 보자면 ‘정치는 기성세대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청년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청년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노총 21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 자료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후보의 공약들을 본 결과 한국노총에서 제안해주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국회와 상임위에서 채워가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장 모경종 의원은 “‘청년이 미래다’라는 구호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호이기도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다”라며 “청년은 미래세대가 아닌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현재 세대”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하고 현재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청년들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노동존중선대위 여성청년본부 청년단장 한다스리 위원장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검증된 실행력과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여주었던 이재명 후보가 만드는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기대하며 남은 선거기간 필사적으로 펼 것”을 다짐했다.

공공노련,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및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위원장 이지웅)도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선대위와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

책협약'을 체결하고 이재명 후보에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공공노련 이지웅 위원장과 공공노련 회원조합 대표자 20여 명,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공동위원장 김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맺은 정책협약 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법 제·개정 ▲혁신도시 발전 통한 지방균형발전 추진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선 ▲공공기관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ILO 권고 이행 ▲공공기관 노정 관계 민주화 등이 담겨있다.

이지웅 위원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선대위과 정책협약을 체결한다”며 “약속은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오늘의 약속을 무겁게, 책임감 있게 받아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존중선대위 공동위원장 김주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노동자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 요구인지 잘 알고 있다”며 “약속이 약속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4월 28일(월) ~ 29일(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지 정당 결정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해 과반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실천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끝/

첨부. 현장 사진.



▲한국노총 청년노동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한국노총 청년노동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공공노련-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공공노련-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